

본선직행 썰기 vs 반전 모멘텀... '정세균 조직 끌어안기' 총력

이재명측 "정세균 캠프 세력 흡수·대세론 강화 계기로"
이낙연측 "이력·정체성 같아... '반명 연대'로 대역전 발판"

정세균 대선 경선 사퇴... 호남 경선 영향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이자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경선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사실상 경선의 승부처로 좁히는 호남지역 경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백의중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정 전 총리는 사퇴선언 이후 다른 후보 지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했다. 같은 호남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배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민주당을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다"며 "그래서 저의 결정은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총리 지지 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정 전 총리는 친노·친문을 아우르는 민주당의 직통을 자임해왔으며, 경선 초반부터 이낙연 전 대표와의 '반 이재명 단일화'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정 전 총리는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가 백의중군을 선언한만큼 그의 중도 사퇴가 특정 후보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에서 '본선 직행'의 썰기를 막으려는 이재명 경기지사나 호남에서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이낙연 전 대표 양쪽 모두 '정 전 총리 조직 안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지사측은 정 전 총리 측 조직과 이 전 대표와의 추후 연대 가능성에 경계감을 내비치면서도 정 전 총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내심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정 전 총리 캠프 세력이 자발적으로 합류, 대세론 강화 및 친문 끌어안기 가속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선 초반부터 '반명 연대'를 고리로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띄워준 이 전 대표 캠프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력과 지역, 정체성 등 면에서 공통분모가 적지 않은 양측간의 연대를 통해 호남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구축한 뒤 경선에서 대역전극을 쓰겠다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한편,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당내 '빅3'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예비경선 단계에서는 '노무현의 오른팔'이 광재 의원과 단일화를 이뤄내는 등 당내 정통성과 경제정책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선거전을 치러왔다.

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보지 않느냐는 관측을 해왔다. 하지만 충청에서 시작한 순회경선 초반 좋은 자릿수 저조한 득표에 머물렀고, 전남 발표된 '1차 슈퍼위크' 국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당원 선거인단 개표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밀린 4위로 내려앉으며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이후 정 전 총리는 일정을 울스름, 마지막 속고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후 3시 캠프 긴급 회의를 열어 거취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호남지

역 경선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정 전 총리는 그를 옮겨왔던 '저평가 우량주'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셈이다. 정 전 총리의 사퇴로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5과전으로 재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 전 총리의 중도 사퇴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정 전 총리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당 중심 잡아주고 정권 재창출 역할 맡아달라"

이재명, 정세균 후보직 사퇴 입장
"호남까지 압도하는 것은 과욕"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정세균 전 총리의 후보직 사퇴 관련 "당의 중심을 잡아주고 정권 재창출에 핵심 역할을 맡아달라"며 "민주 정부 가야 할 길에 지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전남 언론인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정세균 후보님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 대표일 때 제가 당의 상근 대변인이라는 직책으로 모시던 분으로 저도 정세균 전 대표님의 식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세균 전 대표님이 공천해줘 성남시장이 됐고 이를 토대로 이 자리에 왔다"며 "오늘 이재명이란 사람, 정치인 만들어낸 건 정세균 후보님이며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안타깝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정세균 캠프) 여러분들과 인연도 지금 계속 갖고 있고 정 후보님은 민주당의 보배 같은 원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의 사퇴로 향후 경선 과정에서 유불리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런 계산할 상황도 아니다"며 "제가 할 몫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호남 경선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님의 지역 연고이고 통계적으로도 (이낙연 후보가) 지지를 높다"며 "성심을 다해 설명하고 보여드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그다음 지역 남아있고 후보별 강점 지역도 있는데 거기(호남)까지 압도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차 슈퍼위크 결과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이 에너지가 모이는 과정이면 좋는데 갈등 균열 마이너스 요인 있다"며 "어느 쪽이든 전체를 위해 조기 종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0% 못 넘을 경우 선거기간이 길어질 문제 있다"며 조기에 후보가 결정되기를 바란다는 심경을 전했다. /연합뉴스

'父 부동산 의혹' 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이낙연 사직안은 미상정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여야는 윤 의원의 사직안 제출 당시 상대에게 '공'을 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했으나 결국 가결로 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윤 의원의 사직안건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 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미래차·6G로 호남 광역경제권 만들겠다"

박용진 후보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13일 광주를 찾아 "뉴DJ(김대중) 노선으로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다"며 "광주·전남에 미래 전략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믹스(바이오헬스, 2·3차 전기, 미래차, 6G)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차세대 핵심산업이고, 이 공약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은 광주와 전남"이라며 "바이오믹스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광주·전남에 그랜드비전을 안겨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 특화산업 ▲함평·광안에 미래차 특화산업 ▲장성·북구에 AI 인공지능 특화 산단을 만들고, 이 세 곳을 중심으로 480만평 규모 국가 미래산업 삼각지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순에 바이오백신 산업특구 ▲여



수·순천·광양의 5G 스마트산업단지 ▲고흥에 6G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광주·전남 전역에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완도 국립남대수목원과 흑산공항 건설 사업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호남의 지지 없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제가 들은) 광주·전남의 민심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미팅한 경선판을 흔들어 박용진이 DJ의 뒤를 잇는 유능한 진보 대통령이 되겠다"며 "오늘부터 호남권 투표가 있는 2주 뒤까지 호남권에 총력을 다하겠다. 추석 연휴에도 호남권에 머물면서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통반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1617 호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전부해제)에 따른 열람공고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일원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전부해제)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전부해제) 내용 (단위: m)

보호구역명	위 치	변경(전부해제)면적		사유
		변경전	변경후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청동동, 금곡동, 우암동 일원	9,700,000	0	간화정수장 폐쇄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목적상실
계		9,700,000	0	

- 공고기간: 2021. 9. 14(화) ~ 9. 30(목) [공람시간 09:00~18:00]
- 도면 및 지번조서: 개재생략(용량초과로 공람장소에 비치)
- 공람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 사무실
- 의견제출 방법: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 의견제출 장소 및 기타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 (062-410-6471)
※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기후환경과

분할합병공고(정정공고)
(세원지 이외 및 주권제출중)

정정사항
4. 양도자: 주식회사 태강이앤씨 → 주식회사 두승이앤씨
5. 양수자: 주식회사 두승이앤씨 → 주식회사 태강이앤씨

주식회사 두승이앤씨(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두승이앤씨(이하 "을"이라 함)는 2021년 08월 02일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소유자 시흥공사를 53.33%의 지분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분할합병을 위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시흥공사를 "갑"이 흡수합병하고 "을"은 존속하여 "을"의 분할은 "에"에 관한 "리"라는 "갑"이 흡수하고 "을"의 재무공 증서란 재산 관련 재무정보를 변경하였으나,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등 이해 관계인은 다음 기간 내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채권자등이 주권 또는 주권 양의 주권 소지할 주권 다음 기간 내에 그 주권을 "갑"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양도(분할합병)대상: 제 2015-02-00114 호
2. 양도(분할합병)대상: 2021년 09월 02일까지
3. 이의제출기간: 의견제출
(1) 기 간: 2021년 08월 03일부터 ~ 2021년 09월 02일까지
(2) 제출처: 분할회사 또는 분할합병회사
4. 양도자: 주식회사 두승이앤씨(062-223-6669)
5. 양수자: 주식회사 태강이앤씨(062-233-1000)
2021년 08월 03일

"갑" 주식회사 태강이앤씨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암로 295번길 2층
대표이사: 이진영
"을" 주식회사 두승이앤씨
대표이사: 나우지 상기길 1
대표이사: 이진영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wing~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